

테마칼럼

경제로 세상보기

대안으로 묻기

광고를 넘어

정보·문화 세상



이상길

이 세상과 e-세상

연습은 할 수 있다는 소리에 활짝 얼굴을 펴신다. “강의실에서만 연습하다 보니 자판 쓰는 게 잘 안해서 답답하더라. 이제 연습할 수 있겠네” 그런데 컴퓨터란 것이 도대체 뭐기에 그 나이의 어른들에게까지도 이런 학습의욕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는 2018년에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 고령사회,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한다. 광주시만 해도 2005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30년에는 초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광주시에서는 노인건강관리와 여가를 2·3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전국최초의 종합 테마파크로 ‘빛고을 실버타운’을 건립하는 등 고령친화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버산업이 미래의 유망산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도 속출하고 있는데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 원격 환자 모니터링과 같이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가 대표적인 경우다. 서비스에는 화상전송·대화가 가능한 컴퓨터와 혈압·혈당, 심전도 측정기 등이 설치되

는 데 노인들이 주거하는 공간에서 혈압·혈당·체지방, 심전도 등의 검사를 받으면 병원에 있는 의사가 인터넷으로 그 기록을 받아 진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 헬스(u-health) 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컴퓨터, 인터넷이 대표하고 있는 e-세상은 이제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최근 3년간 의류·패션의 구매를 조사 결과,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구매 방식은 주로 TV홈쇼핑과 백화점 등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젊은 층의 전유물로 인식돼온 인터넷 쇼핑물까지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서 온라인 쇼핑물에서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아줌마, 아저씨 브랜드 매장이 늘고 있다. 남녀노소, 이 세상과 e-세상을 넘나들고 있는 2009년 대한민국, 발달된 의료력과 편리한 쇼핑을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과 e-세상을 동시에 즐기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 세대 컴퓨터 배우기는 이미 필수가 된 것은 아닐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중고칼럼



고재경

기고



정남선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하루종일 우리가 서로 약속한 규칙, 관습, 법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 당장 도로에만 나가봐도 교통신호체계가 우리를 맞이한다. 서로 약속한 것을 지킬 때에는 소통이 불 흐르듯이 원활하지만, 상호 간의 약속을 어기고 깨뜨릴 때에는 누군가는 손해를 입고,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다. 법(法)은 일차적으로 우리의 관계가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去) 하여 서로 보호하고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지 않는 이상, 남들과 어울려 조화롭게 살아가

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어느 주운 겨울날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할아버지가 빵집 앞을 지나다 빵을 몇 개 훔쳐 달아나다가 동네주민들에게 붙들려 즉결심판에 넘겨지게 되었다. 관사는 할아버지에게 빵을 훔친 죄를 물어 벌금 1만 원을 선고했다. 그리고선 자기 지갑에서 만원을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 놓은 다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피고가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간 이들의 죄도 인정되지만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벌금 1만 원씩을 선고

영혼을 맑아지게 하는 입법

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가톨릭교회 안에도 법이 있다. 하늘을 믿는 사람들끼리 무슨 법이 필요 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늘의 백성인 교회의 구성원 역시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하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한 법이 공동체 안에 당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세계 모든 가톨릭교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편교회법은 1983년에 개정된 것으로서 1752조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교회법 조항 중에는 일반 사회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항이 하나 있다. 교회법 제1 마지막 조항인 1752조에서는 ‘교회의 최상의 법이 영혼들의 구원임을 명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회법이 단순한 신자들 상호 간에 서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나 현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욱 더 큰 가치인 영혼들

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모인 돈을 관사가 할 아버지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법적인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법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자신의 영역만을 지키며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따뜻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성된 각자가 서로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법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본다. 국회에서 우리나라의 법을 제정하는 입법자들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리일까? 제법 가진 자들의 밥그릇을 챙겨주려고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는 그런 입법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 모두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입법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천주교광주대교구 교구법원 판사>

황사, 근본적인 대책·해결 방안 찾아야

요즘 황사는 봄에 찾아오지 않는다. 한 겨울에도 건조한 날씨에 황사가 찾아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황사와 나무 짓가라’라는 말이 있다. 중국의 황사가 나무짓가라 무스 연관성이 있기에 그런 말이 나왔을까. 그들은 당장 개발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 짓가라를 만들어 수출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는 나무를 베어 종이를 만들고 양질의 펄프를 여러 공산품을 만들지만 중국은 그 많고 많은 나무를 베어 환경에 별로 친화적이지도 않은 일회용 짓가라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오선진·광주시 동구 서석동

그로 인해 나무가 없는 사막의 증가로 먼지바람이 불고, 그게 황사가 되어 우리나라 전역에 사사할 내습을 하는 것이다. 비가 오는 날이면 먼지가 수북이 섞인 흙 비까지 맞아야 하는 게 우리나라의 처지다. 중국을 상대로 외교적인 문제제기와 보상 혹은 황사 저감대책 등 장기적이고도 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황사가 오는 날, 집에 앉아서 삼겹살이나 구워먹으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도 버리고 우리 국민들 스스로도 큰 문제로 여기고 대처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은채·광주시 광산구 북동동

농·수협 개혁 더 이상 머뭇거리기 시간 없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대미문의 세계 경제위기는 우리나라 경제 또한 휘청거리게 하고 있다.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경제전문가들의 목소리는 하나같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우리의 목소리뿐이다. 이러한 와중에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분주하다. 눈앞의 고통을 피하려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도래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과 촉박함이 묻어나 있다. 위기상황 속에 농협은 물론이고 일선 수협 또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위기다.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했던 완도군 수협이 설립한 지 3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8개의 일선농협은 3년여만에 현재 4개 농협으로 흡수합병 되었으며, 1개 농협 또한 경영 재건단계에 따라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일선 조합이 흔들리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된 조합원들의 불평 불만의 목소리는 들끓고 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은 깊은 상실감에 젖어 있다. 농협 흡수통합의 현저한 나로서도 그 처절함과 비통함을 말로 표현하

기 힘들 지경이다. 농어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조합이 이제는 그들에게 무거운 짐만 안겨준 형국이나 농어민의 대변자라는 말조차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제는 변해야 산다. 농어민도 변해야 하며, 협동조합도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자기가 살면 된다는 개인주의 의식을 버리고 협동조합과 같이 상생해야 하며, 협동조합 또한 진정한 농어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고객과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협동조합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원도 농업협동조합장>

대중 목욕탕에서 수질 오염시키는 행동 자제해야

우리나라는 물부족국가이며 앞으로 언젠가는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한다. 그만큼 물과 수질관리는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물에 대해 아직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같은 여자 입장에서 봐도 목욕탕에서 만나는 일부 여성분들에게 적잖은 잘못이 있다. 목욕탕에서 일부 여성들은 오이를 갈아서 얼굴에 붙이고 그대로 떼어 오이를 그냥 수구로 흘려 보내버린다.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오이뿐만 아니라 우유 요구르트, 한 술 더 떠서 떠먹는 요구르트 등을 바르고 있다가 그대로 씻어내리기까지 한다. 우유나 유제품의 경우, 여기저기 튀어서 미처 씻겨지지 않은 곳에서 엄청난 세균이 번식할 것이다. 오이 찌꺼기는 하수구로 흘러내려 가서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우리들의 자연을 훼손시킬 것이다. 목욕탕 업주들이 이런 여성들의 뒤를 쫓아 쫓아다니며 행동에 주의하도록 감시하기도 힘든 일일 것이다. 여성들 스스로 이런 행동들을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은채·광주시 광산구 북동동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www.kwangju.co.kr>

시설

경제 ‘날개 없는 추락’ 경기부양 서둘러야

우리 경제가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우리가 현실로 다친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경제가 전년 동기보다 -3.4%로 감소했다. 분기별 마이너스 성장은 환란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2.5%로 2007년 5.0%의 반 토막에 그쳤다.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을 가리키는 실질 국내총소득(GDI) 성장률도 -2.1%로 10년 만에 뒷걸음쳤다. ‘날개 없는 추락’이란 말이 실감날 정도다. 문제는 올해 경제사정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이라는 점이다. 국제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올 성장률 예상치를 지난해 11월 3.3%에서 0.7%로 수정했다. 이는 ‘수정’ 차원이 아니라 전면 취소, 재전망이라고 해야 한다. 해외기관의 전망은 더욱 비관적이다. S&P와 피치는 한국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각각 0%, -2.4%로 더 내려 잡고 있다. 급

기야 모건스탠리는 어제 기준 2.7%에서 -2.8%로 하향조정했다.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경제 하락(續落)은 수출 약화에다 내수 부진까지 겹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수출은 세계경제와 맞물려 우리 혼자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내수만이 아니라 살려 최악 호주머니 사정을 가리키는 실질 국내총소득(GDI) 성장률도 -2.1%로 10년 만에 뒷걸음쳤다. ‘날개 없는 추락’이란 말이 실감날 정도다. 문제는 올해 경제사정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이라는 점이다. 국제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올 성장률 예상치를 지난해 11월 3.3%에서 0.7%로 수정했다. 이는 ‘수정’ 차원이 아니라 전면 취소, 재전망이라고 해야 한다. 해외기관의 전망은 더욱 비관적이다. S&P와 피치는 한국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각각 0%, -2.4%로 더 내려 잡고 있다. 급

영광 ‘작통굴비’ 근절대책 시급하다

중국산 조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부 업소들로 인해 영광지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특히 이번 ‘작통굴비’ 파동은 일 년 중 최대 성수기라 할 수 있는 설을 앞두고 터진 것이어서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영광지역에서 판매하는 모든 굴비가 작통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지난 14일 한 TV교보프로그램을 통해 영광 법성포의 일부 업소에서 가져온 조기를 판매하는 현상이 소 개된 이후 주문이 폭 넓었다고 한다. 영광 굴비업체들에 따르면 올 설 연휴를 전후해 1천 500억원의 매출을 예상했으나 이제는 700억원 매출도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작통굴비 파동으로 8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사라진 셈이다. 예년 이맘때면 법성포 일대 도로는 택배차량과 소비자들의 자동차로 번잡했지만 요즘은 한산하기 짝이 없다. 상인들도 방송이 보도된 후 전국에서 밀려드는 주문 취

소 전화에 망연자실해 있는 실정이다. 작통굴비 파동이 심상치 않자 전남도와 영광군이 공동 단속반 운영, 조례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명절 때마다 가져굴비 논란이 반복돼 왔던 만큼 이 같은 사후약방문이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사실 그동안 영광지역 일부 굴비 업자들은 중국산 조기의 영광굴비 둔갑을 알고도 쉬쉬하는 경우가 있었다. 수요가 폭증하는 기간에 국내산 조기를 구하기 힘들어서다. 중국산 조기를 들여온 수입업자가 법성포지역에 위탁해 가공한 후 진짜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이다. 따라서 실추된 영광굴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선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게 급선무다. 일부 업자들의 장사속이 이번 파동을 불러온 만큼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절실하다.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작통굴비 논란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민·관이 합심해야 한다.

無等鼓

“쌍화점에 쌍화(雙花) 사라 가고신, 회회아비 내 손모를 주여이다. 이 말미 이 점(店) 밧기 나명들명, 다로러거더러 조고맛간 샷기광대 네 마리라 호리라...” 고려가요 쌍화점이다. 쌍화란 쌍화(霜花)의 음역으로 호떡, 즉 만두다. 충렬왕(忠烈王: 재위 1274~1308)이 오장·김원상·석천보·석천경 등을 시켜 지었다. 모두 4절로 된 이 노래는 대상에 따라 장이 바뀐다. 회회아비, 삼장사의 사주, 우물의 용, 숲길아비 등이 화자인 여자를 유혹해 불륜 관계를 갖는 고 소문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도 그 곳에 자러 가겠다’고 한다는 내용이다. 이 노래는 당시의 자유분방한 성운리가 잘 나타나 있다. 동성연애를 담은 영화 ‘쌍화점’이 주연 배우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연기로 연일 저자거리 화제다. 영화 ‘쌍화점’은 고려 말 왕실을 배경으로 한 액션 멜로 영화다. 충렬왕 시절의 가요와 실제 역사에 있었던 공민왕 시해사건을 적절하

게 연결, 모터보트 삼았다. 왕(주진모), 왕후(송지효), 호위부사(조인성)의 묘한 삼각관계가 치명적인 결말로 치닫는 과정에 박진감 넘치는 액션, 화려한 궁중 세트 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스타배우들의 동성간 베드신과 호위부사와 왕후의 베드신은 가히 파격적이다. 영화에서 공민왕은 동성애자다. 친위부대 수장인 홍림과는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이이다. 왕은 원(元)에서 온 왕후 사이에 후사가 없자 홍림에게 왕후와의 동침을 명한다. 왕후와 홍림은 서서히 금지된 사랑에 빠지고, 왕은 홍림의 베신에 몰사리치며 점점 미쳐간다. 결말은 죽어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막을 내린다. 침체된 한국영화계의 외연과 내연을 동시에 넓힌 영화로 기록될 만 하다.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없는 ‘18급’ 영화지만 설날 아내와 연인들과 한번 감상해 볼 만한 영화다. /김일환 여흥매체부장 kih8@

쌍화점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